

SK 새 대표이사에 민경삼 전 단장 “구단 재건 위한 리더십 필요했다”



민경삼 선임 대표이사

흔들리는 SK 와이번스를 위기에 서 구할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SK 구단은 14일 “민경삼 전 단장(57)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민 신임 대표이사는 프로야구선수 출신으로는 처음, 야구인 출신으로는 김응용 전 삼성 라이온즈 사장(현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장)에 이어 2번째로 프로야구단 사장이 됐다.

SK는 류준열 구단 대표이사가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내년 시즌 준비를 위해 새로운 대표와 함께 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SK 구단 측은 “야구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인적 네트워크, SK 구단 조직과 문화에 대한 이해, 구단 재건을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 전 단장이 책임자라고 판단해 신임 대표이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신임 대표이사는 1986년 LG 트윈스의 전신인 MBC 청룡에서 프로선수로 데뷔해 1992시즌까지 뛰었다. 은퇴 후에는 LG 구단 프런트와 코치를 지냈고, 2001년 1월부터 SK 구단에 합류해 운영팀장, 경영지원팀장, 운영본부장을 거치며 초창기 구단 전력의 토대를 닦았다. 특히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은 단장직을 수행했다. 구단 내 요직을 두루 거치는 동안 팀이 한국시리즈 우승 3회(2007·2008·2010년)의 호성적을 거두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단장직을 내려놓은 뒤에는 KBO 육성위원회 부위원장과 상벌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한편 지난 5년간 구단을 이끈 류준열 전 대표이사는 SK텔레콤 고문으로 위촉됐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선발’로 시즌 피날레 나서는 김범수

2군서 이틀 휴식후 등판 루틴 지키며 이닝 늘려가
최원호 대행 “회복시간 긴 선발 낫다는 의사 소견”



김범수

한화 이글스 좌완투수 김범수(25)는 올 시즌 초반 팀이 18연패에 빠지는 등 극심한 부진을 겪을 때 가장 믿음직한 카드였다. 고관절 부상으로 7월 31일 1군을 벗어나기 전까지 거둔 성적은 23경기(7선발)에서 3승 6패, 평균자책점(ERA) 5.33으로 그리 화려하진 않았다. 그러나 팀이 18연패를 끊은 6월 14일 대전 두산 베어스와 서스펜디드 경기에 가장 먼저 나서서 등 그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났다. 더욱이 최고 구속 150km대의 빠른 공을 던지는 젊은 좌완투수의 가치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조용히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김범수와 최원호 감독 대행의 시선은 시즌 최종전인 30일 대전 KT 위즈전을 향하고 있다. 보직은 선발이다. 올 시즌 피날레를 장식하는 무대에서 팀 성적과 관계없이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7일부터 퓨처스(2군)리그에서 이틀 휴식 후 등판의 루틴을 지키며 서서히 이닝을 늘려가며 기대를 키우고 있다. 최 대행은 “시즌 마지막 경기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며 “30일 경기에 던질 수 있도록 꾸준회 회복세를 체크하며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몸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다. 직구 구속도 140km대 후반을 찍을 정도로 컨디션이 올라왔다. 그럼에도 당장 1군에 올리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선발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다. 최 대행은 “짧게 여러 차례 던져야 하는 불펜보다는 선발이 낫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며 “선발투수는 한 번 마운드에 올랐을 때 길게 던지니 테미지가 크지만, 휴식하며 회복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10월 ERA 15.55’ 선발 라이트 부진에 속타는 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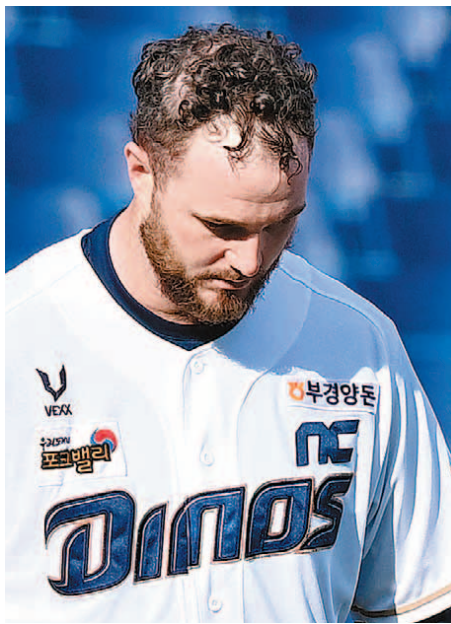
가을야구 눈앞인데 ‘꺼져버린’ 라이트

선발투수 최소 3명 있어야 PS 승산
구장모 복귀 미정...외인 활약 절실
라이트 현재 컨디션은 장담 못해
이동욱 감독 “몰리는 공 너무 많다”

‘V1’을 향한 과정이 쉽지 않다. 정규 시즌만의 걱정도 아니다.

팬트레이스 우승을 쉽게 차지하는 듯했던 NC 다이노스에 갑작스럽게 걱정거리가 들이닥쳤다. 나란히 10승 넘게 거두며 원투펀치 역할을 하던 외국인 투수 조합이 엇나가기 시작했다.

마이크 라이트(30)의 최근 컨디션이 심상치 않다. 10월 3경기에서 평균자책점(ERA) 15.55를 찍으며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개인 3연패에도 빠져 특유의 활달한 모습까지 실종됐다. 라이트는 최근 마운드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한국시리즈 직행을 노리는 NC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외국인투수 마이크 라이트가 10월 3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5.55로 고전 중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정규시즌을 우승하더라도 포스트시즌에서 원투펀치 역할을 해줘야 하기에 고민이 깊어진다.

스포츠동아HDB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정규시즌 우승은 물론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가시권에 두고 있는 NC에는 여러모로 약재다. 포스트시즌(PS)에선 선발투수의 중요성이 특히 더 강조되는데, 현재로서는 드류 루친스키를 제외하곤 강하게 내세울 만한 카드가 없다. 빅게임 피치의 실종이 1위 팀의 고민으로 떠오른 것이다.

토종 에이스 구장모는 13일 재활 후 첫 불펜피칭을 했다. 정상적으로 첫 불펜투구를 마쳤지만, 실전 복귀시점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송명기, 김영규, 박정수로 이어지는 영건 라인도 분투하고 있지만, 아직 큰 경기 경험이 많지 않다. 결국 외국인투수들의 1·2선발 활약을 기대해야 하는 NC다.

빅게임 피치가 없다는 것은 불의의 일격을 당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다. 라이트의 컨디션 회복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유다. 현재의 컨디션으로 정규시즌을 마무리하면 PS 무대에서 호투를 결코 장담할 수 없다.

NC 이동욱 감독은 13일 “라이트의 공이 가운데로 몰리는 경우가 최근 많았다. 아무리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여도 가운데로 몰리면 맞게 돼 있다. 자기가 던지고자 하는 부분에 공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라이트는 이날 창원 KIA 타이거즈전에서 실투로 장타를 허용하는 횟수가 많았다.

PS 무대에서 강팀이 되려면 최소 3명의 확실한 선발카드를 갖춰야 한다. 시리즈 내내 언제 총력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상태 속에서도 최소 초반 5이닝을 버텨줄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즌 막판 NC가 드러낸 약점은 분명 부담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업셋’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에 해법 마련이 절실한 NC다.

창원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탬파베이 히터 렌프로(오른쪽)가 14일(한국시간)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휴스턴과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 6회초 5-1로 달아나는 썬기 2타점 2루타를 때려내고 있다. 탬파베이는 파죽의 3연승으로 12년만의 월드시리즈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겨뒀다. 샌디에이고(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탬파베이, 오늘 웃으면 12년만에 WS 진출

3차전 역전승·3연승...최지만 결정
커쇼 부상 다저스, 2차전도 쏘뚱

아메리칸리그(AL)와 내셔널리그(NL) 정규시즌 승률 1위 팀들의 희비가 찼던 챔피언십시리즈(CS·7전4승제)에서 엇갈리고 있다. AL 1번 시드 탬파베이 레이스는 창단 후 2번째 월드시리즈(WS) 진출에 1승만을 남겨뒀고, NL 1번 시드 LA 다저스는 탈락 위기에 몰렸다.

탬파베이는 14일(한국시간)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ALCS 3차전에서 5-2 역전승을 거뒀다. 파죽의 3연승을 거둔 탬파베이는 1승만 보태면 2008년 이후 12년 만에 WS 무대를 밟는다. ALCS 4차전은 15일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탬파베이 선발 라인업 야브로는 5이닝 3안타 2홈런 2볼넷 5삼진 2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타선에선 조이 웰들이 4타수 2안타 2타점, 랜디 아로사레나가 4타수 3안타 1득점으로 팀 승리에 앞장섰다. 최지만은 결정했다.

탬파베이는 0-1로 뒤진 6회 빅이닝을 만들어 승부를 갈랐다. 무사만루 기회서 웰들의 2타점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했고, 윌리 아다메스의 밀어내기 사구, 히터 렌프로의 2타점 2루타로 5-1까지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다저스는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벌어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NLCS 2차전에서 7-8로 패했다. 이로써 다저스는 2연패에 빠지며 흐름을 넘겨주고 말았다.

NLCS 3차전도 1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다저스는 2차전 선발로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를 예고하며 반격을 노렸다. 올해 포스트시즌(PS) 2경기에서 2전승, 평균자책점 1.93을 기록한 커쇼에게 전날(13일) 1차전의 패배를 설욕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커쇼가 경기 직전 등경련 증세를 보여 선발등판이 무산됐다.

토니 곤잘레스가 대체 선발로 나섰다. 4.1이닝 3안타 1홈런 3볼넷 7삼진 5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이어 등판한 페드로 바에스도 난조를 보인 탓에 4·5회에만 6실점하며 승기를 내주고 말았다. 3-8로 뒤진 9회말 맥스 먼시의 2점홈런 등으로 뒤늦게 추격했지만, 패배를 피할 수 없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현장-프런트 갈등의 시대 ‘존중과 협치’ KT를 배워라

감독-단장, 신뢰 기반 역할 분담
가을야구 넘어 2위 전쟁 강팀 우뚝

프런트와 현장은 공존할 수 없을까. 허민 이사회 의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손혁 감독을 사실상 경질한 키움 히어로즈가 터뜨린 폭탄의 파장이 야구계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어디에나 그렇듯 ‘반례’는 존재한다. KT 위즈도 그 중 하나다. 2018시즌 후 나란히 부임한 이강철 감독과 이송용 단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역할 분담으로 창단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KT는 2018시즌 후 김진욱 감독과 결별한 뒤 이 단장 선임에 앞섰고, 며칠 뒤 이 감독 선임도 발표했다. KBO리그 최고의 투수 출신 감독, 그리고 KT의 원년부터 함께 한 대타자이자 코치 출신 인사의 동행에 시선이 쏠렸다.

선수과 코치로 이룩한 업적이 원체 대단했기에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명확히 자신들의 역할을 나눴다. KT 프런트는 이 감독에게 당장의 성적 대신 ‘팀 빌딩’을 바랐다. 투수 조련에 일가견이 있는 이 감독이 젊은 유망주들의 잠재력을 터뜨려줄 것이라 기대했다. KT 사정에 정통했던 이 단장이 2군을 관장하며 육성 파트를 맡았다.

지난해 KT는 초반의 시행착오를 딛고 창단 첫 5할 승률의 성과를 냈다. 이 감독이 점찍었던 유망주 투수 배제성이 창단 첫 토종 10승 반열에 올랐고, 이 단장이 트레이드로 데려온 조용호, 박승욱 등이 알토란같이 보탬이 됐다. 올해는 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을 넘어 2위 싸움까지 펼치고 있다. 지난 2년간 뚜렷한 프레이젠틘트(PA) 영입이나 빅 네임 트레이드는 없었지만 강팀이 됐다.

이 감독은 “감독이 전권을 잡는 시대가 아니다. 감독과 프런트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고 합치했기 때문에 마찰 없이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기용은 감독님의 몫이고 우리는 서포트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명문 구단이다. 신인드래프트에서 KT에 지명된 학생이 환호하는 팀이 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감독이 답답할 때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소통하는 단장. 서로 단단한 신뢰가 구축돼야 하니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다. 감독과 단장, 현장과 프런트는 한 배에 타고 항해하는 두 명의 항해사다. 뼈저대는 것은 곧 표류를 의미한다. KT의 올 시즌 호성적은 결코 요행이 아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